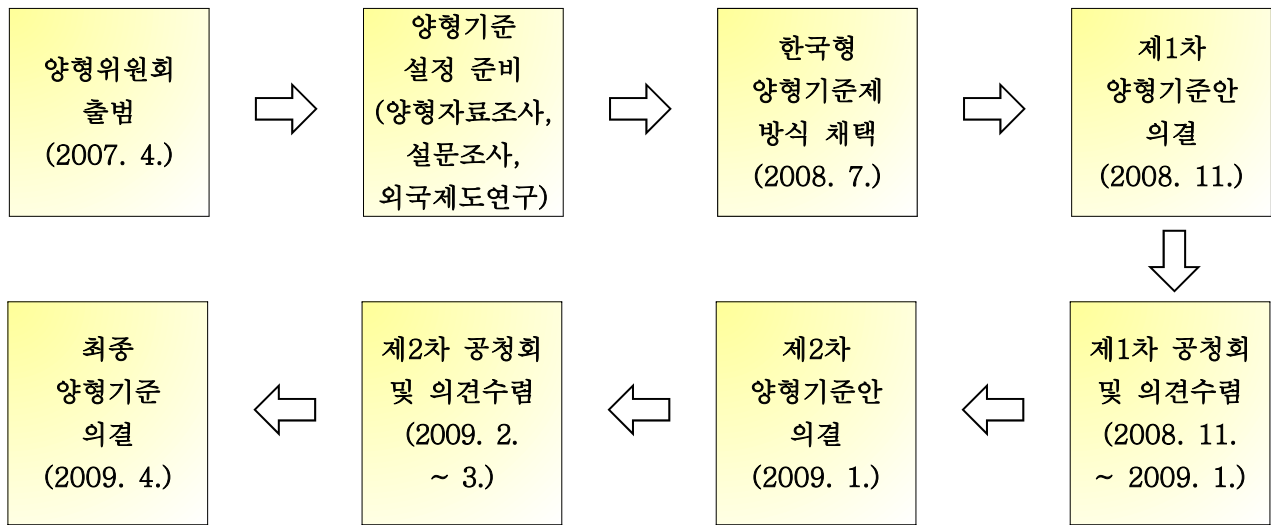


■ 추진 경과



※ 공청회 회부 대상 양형기준안

- 제1차 공청회(2008. 11. 24.) : 살인, 뇌물, 성범죄
- 제2차 공청회(2009. 2. 6.) : 강도, 횡령·배임, 위증·무고

■ 의결 내용

- 살인, 뇌물, 성범죄, 강도, 횡령·배임, 위증·무고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
 - 경합범 및 집행유예의 일반적 기준 제시
 - 공청회 및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기준안 추가 심의
- 양형기준 적용범위
 - 2009. 7. 1. 이후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
 - 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
 -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

■ 의결 의미

- 우리나라 법체계에 적합한 고유한 양형기준 설정
 - 대륙법계 국가 중 최초로 양형기준 시행
 - 미국 연방식, 영국식 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독자적인 한국형 양형기준 모델 창출
 - 법원조직법 부칙에 따라 제1기 양형위원회 임기(2009. 4. 26.까지) 내에 설정
- 양형기준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과 상식을 반영
 -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범죄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
 -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가중처벌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
 - 선진 양형제도 구현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
-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 진행
 -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와 의견조회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
 -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
 - 종국적으로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

■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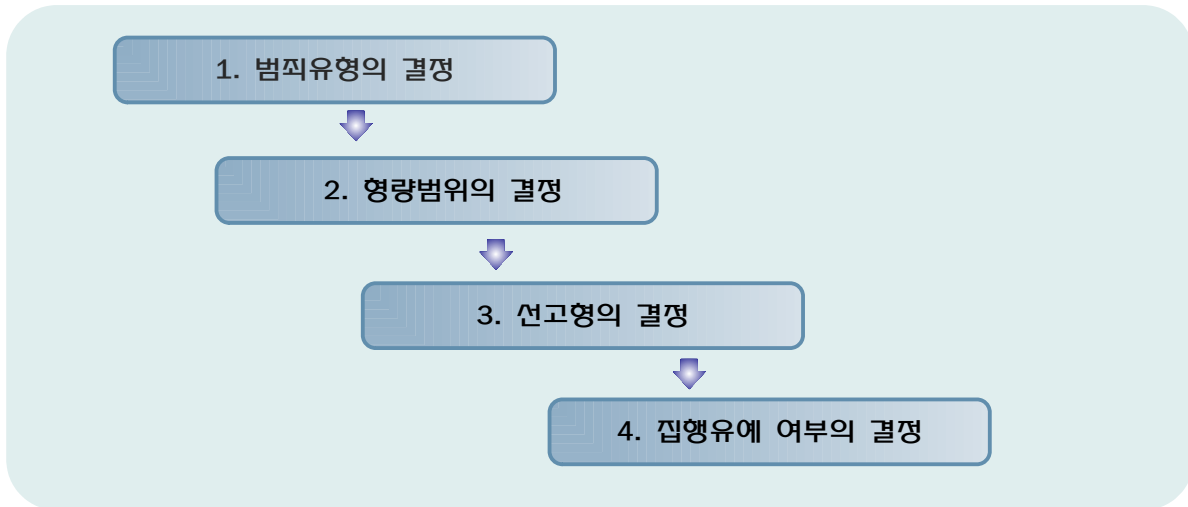
- 제1기 양형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살인, 뇌물, 성범죄, 강도, 횡령·배임, 위증·무고범죄에 관해 양형기준을 설정
 - 살인범죄 : 범죄의 중대성 및 양형기준의 상징성 고려

- 뇌물범죄, 성범죄 : 높은 사회적 관심 반영
- 강도범죄 :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대범죄인 점 고려
- 횡령·배임범죄 : 화이트칼라 범죄의 적정 양형에 대한 국민적 요청 반영
- 위증·무고범죄 : 신뢰받는 재판문화 정착을 위한 필요 고려

■ 양형기준의 특징

- 범죄별 유형구분을 통한 합리적인 형량범위 제시
 - 범죄별 특성을 살려 유형을 분류한 다음 각 유형별로 세분화된 형량범위를 제시
 - 양형실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기초로 하되, 필요할 경우 규범적 조정을 가미하여 형량범위 설정
- 범죄별로 구체적 양형인자와 평가원칙을 제시
 - 범죄별로 법관이 양형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양형인자를 엄선한 후 경중 및 성격에 따라 특별/일반인자, 가중/감경인자로 구분
 - 행위자에 관련된 요소보다 범죄행위 자체에 관련된 요소를 중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평가원칙 제시
- 경합범 및 집행유예의 일반적 기준 제시
 - 경합범 기준 설정을 통한 양형기준 적용 대상 확장
 - 집행유예 기준 설정을 통한 양형편차 시비 해소

◆ 양형기준의 적용순서 ◆



■ 양형기준에 따른 기대 효과

○ 엄정한 양형의 구현

- 뇌물, 성범죄 등의 경우 규범적으로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엄정한 양형 구현
-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집행유예 결정에 관한 엄격한 심사체제 도입

○ 이른바, '유전무죄' 시비 불식

- 횡령·배임범죄에 관하여, 지배주주·경영인 등에 대하여도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설정함으로써, 이른바 '유전무죄' 시비와 오해를 불식

○ 양형의 일관성과 적정성 제고

-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로 제한된 형량범위를 제시하여 양형의 일관성 제고
- 범죄 및 범죄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양형인자를 선정하여 구체적 사

건에서의 양형의 적정성 도모

○ 양형심리절차의 충실화 도모

- 양형인자의 존부와 정도에 집중된 당사자의 공방을 유도하여 양형심리의 충실화 도모

■ 양형기준안의 주요 내용

[살인범죄]

○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(또는 경위)를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

- ‘보통 살인’ 외에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유형을 별도 구분
-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의 가정폭력, 성폭력 등 지속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와 같이 범행 동기에 있어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을 별도 유형으로 처리
- 이른바 ‘묻지마 살인’과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나 돈을 받고 청부살인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범행 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을 별도의 중한 유형으로 처리

[뇌물범죄]

○ 뇌물액수를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

- 뇌물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 반영

○ 엄정한 형량범위 제시

- 형량을 규범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종전 양형실무의 개선 모색
 - 예컨대, 5천만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인 실행 권고

- 부패의 고리를 단절시키고자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기준 제시

[성범죄]

○ 피해자 연령과 범행수법 ·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한 유형 분류

- 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 설정
-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별도의 기준 설정
- 강간 유형 내에서, 주거침입강간, 강도강간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는 가중유형으로 처리

○ 엄정한 형량범위 제시

- 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형량을 규범적으로 상향 조정
 - 가중처벌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
 -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실행 권고
- 강간살인범에 대한 중형 권고
 - 기본영역에서도 무기징역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중영역에서는 무기징역 이상만을 권고

[강도범죄]

○ 범행수법 · 결과 등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

-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기준 설정
- 상습 · 누범강도의 경우도 별도의 기준 설정

○ 엄정한 형량범위 제시

- 상습 · 누범강도에 대한 가중처벌
 - 가중처벌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
 - 감경영역에서도 원칙적인 실행 권고

- 강도살인범에 대한 중형 권고

- 기본영역에서도 무기징역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중영역에서는 무기징역 이상만을 권고

[횡령·배임범죄]

- 횡령·배임금액(이득액)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

- 이득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 반영

- 엄정한 형량범위 제시

- 화이트칼라 범죄의 적정 양형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반영
- 기업범죄에도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엄정한 기준 설정을 통해 종전 양형실무의 개선 모색

[위증범죄]

- 법률상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

- 위증과 모해위증으로 유형 분류

- 엄정한 형량범위 제시

- 신뢰받는 재판문화 정착을 위해 형량을 규범적으로 상향 조정

[무고범죄]

- 법률상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

- 일반 무고와 특가법상 무고로 유형 분류

- 엄정한 형량범위 제시

- 무분별한 고소·고발 억제 및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도모

■ 위원회 경과

○ 설립

-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07. 1. 26.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7. 4. 27. 제1기 양형위원회 출범

○ 위원회 현황

● 위원회

- 위원장 및 12명의 위원(1명의 상임위원 포함)으로 구성
- 위원은 법관 위원 4명, 검사 위원 2명, 변호사 위원 2명, 교수 위원 2명과 기타 전문가 위원 2명으로 구성

● 전문위원

- 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업무 수행
- 법관 3명(수석전문위원 1명 포함), 검사 2명, 변호사 3명, 교수 및 전문가 6명으로 구성

● 운영지원단

- 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한 사무기구
- 기획운영과, 자료조사과, 통계분석과 설치

○ 회의 개최

● 위원회 회의

- 2007. 5. 2.부터 2009. 4. 24.까지 정기회의 17회, 임시회의 3회 개최

● 소위원회 회의

- 2008. 10. 15.부터 2009. 4. 7.까지 회의 10회 개최

- 전문위원 회의

- 2007. 7. 18.부터 2009. 3. 27.까지 전체회의 20회, 팀별회의 53회 개최

- 주요 활동

- 외국 양형제도 연구

- 영국, 미국 연방·각주, 뉴질랜드, 오스트레일리아, 독일, 일본 등

- 양형자료조사 및 분석

- 양형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확정된 약 4만 3,000건의 형사사건을 조사
- 유례없는 철저하고 광범위한 양형자료조사 수행

- 설문조사

- 일반인과 법조계의 양형에 대한 인식 확인
- 일반인 1,000명, 전문가 2,294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및 전자우편방식 조사

-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방식 결정(2008. 7.)

- 개별범죄별로 양형기준을 점진적 설정
- 양형인자는 계량화 하지 않고 질적으로만 구분

- 향후 일정

- 2009. 4. 27. : 제2기 양형위원회 출범

- 2009. 하반기 : 양형기준 운영 점검

※ 2기 이후, 추가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의 수정 보완 지속 예정